

## MLB 입성도 전에 “이정후, 다음 시즌 신인상 후보 예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인상이 발표된 날, 언론들은 벌써부터 다음 시즌 신인상 후보로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의 '슈퍼스타' 이정후(25·키움)를 꼽았다. 이정후는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CBS스포츠는 이날 MLB 양대 리그의 다음 시즌 신인상 후보 '와일드카드' 로 이정후를 언급했다.

이날 MLB 사무국은 2023시즌 신인상 수상자로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내야수 거너 헨더슨(볼티모어), 내셔널리그(NL)에서는 외야수 코빈 캐럴(애리조나)가 만장일치로 신인상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CBS스포츠는 “이정후는 콘택트 능력을 지닌 빠른 중견수로 KBO리그에서 7시즌 통산 타율 0.340, 출루율



▲ 홈런 득점에 성공한 이정후가 더그아웃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0.407, 장타율 0.491을 기록했다.”며 “적응 능력을 발휘한다면 신인상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정후와 한솥밥을 먹다가 MLB에 진출해 올해 골드글러브를 받은 김하성(샌디에이고)을 언급하며 “김하성은 KBO 타자가 MLB에서 평균 이상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정후와 함께 신인상 '와일드카드'로 거론된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바리그 입성을 눈앞에 둔 야마모토 요시노부(오릭스)다. 야마모토는 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꼽힐 정도로 주목받는다.

CBS스포츠는 “MLB에 처음 온다고 야마모토를 '신인'으로 묘사하는 건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구속과 제구력, 젊은 나이까지 독보적인 선수”라고 평가했다.

## “추신수, 2026년 MLB 명예의 전당 후보”



▲ 추신수 사진=osen.co.kr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추신수추신수가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HOF) '주목할만한 최초 후보'에 올랐다.

지난 20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MLB닷컴은 전날 향후 5년 HOF 전망을 내놨다. HOF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0시즌 동안 MLB에서 뛰고 은퇴한 지 5시즌이 지나야 한다.

MLB에 따르면, 추신수는 2026년 HOF에 현역 자격을 얻게 된다. 2020시즌을 끝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계약이 종료된 추신수는 KBO리그의 SSG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추신수는 아직 MLB 은퇴를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MLB.com은 추신수를 2020시즌을 끝으로 MLB에서 은퇴한 것으로 간주했다.

추신수는 MLB 16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75, 218 홈런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0.377이고 OPS는 0.824였다. 이 중 218 홈런은 아시아인 최다 홈런 기록이다.

2026년 최고의 최초 후보로는 콜 해밀스와 라이언 브라운이 꼽혔다. 또 2025년 최고 최초 후보에는 이치로 스즈키와 CC 사바시아가 꼽혔다. MLB닷컴은 이치로와 사바시아가 자격 첫 해에 HOF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아드리안 벨트레, 조 마우어, 제이스 어블리가 최고의 최초 후보로 올랐다. 이들 중에서도 벨트레가 유력한 입성 후보로 꼽혔다. 벨트레는 bWAR(93.5)에서 3루수 중 역대 3위다.

## 한국,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4명 출전 가시권



▲ 왼쪽부터 고진영, 김효주, 양희영, 신지애. 사진=JLPGA

한국이 내년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4명이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을 15위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단체전 없이 개인전만 열리는 2024년 8월 파리올림픽은 한 국가 당 2장씩 출전권을 주지만 내년 6월 말 기준

으로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4명 이상이 있는 국가는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고진영이 지난주보다 2계단 내려온 6위, 김효주가 그대로 7위를 지키고 양희영에 이어 신지애가 1계단 내려온 16위에 자리하면서 한국은 내년 파리올림픽 4명 출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양희영이 내년 파리올림픽에 나선다면 2016년 리우 대회 이후 개인 두 번째 올림픽 도전이 된다. 7년 전 양희영은 박인비, 전인지, 김세영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고, 당시 박인비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2023시즌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을 차지한 릴리아 부(미국)이 '월드 넘버' 자리를 지켰고, 인튀닝(중국)과 셀린 부티에(프랑스)가 2,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벨리 코다(미국)가 4위로 2계단 올라섰고, 이민지는 5위 자리를 유지했다.

##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